

새벽 광주 깨운 원불교 종소리 추억속으로

원불교 광주교당이 지난 1957년부터 이어오던 새벽 타종을 최근 중단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광주 도심에 울려 퍼지던 범종 소리가 사라진 것이다. 시계가 흔치 않던 시절 시장상인, 학생, 고시생, 회사원 등 시민들의 시계 역할을 자처해 온 범종 소리도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됐다.

원불교 광주교당의 새벽 타종 중단에는 최근 교당 근처로 이사를 온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하고 귀가한다는 이 남성은 최근 "새벽 종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를 전해들은 광주교당은 곧장 회의를 열고 "종교가 이웃에 불편을 겪어는 안 된다"며 새벽 타종 중단을 결정했다.

한때 광주 도심이 빌딩 숲으로 변하기 전 새벽 타종 소리는 화순읍까지 들렸다는 말까지 떠돈다.

매일 새벽 5시에 울려 퍼지던 범종 소리에 맞춰 하루 일과를 시작한 시장 상인, 고시생, 학생, 회사원 등 광주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높이와 지름이 각각 1.5·0.8m인 범종에서 퍼져나온 범종 소리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원불교라는 종교단체의 의식을 넘어 무려 58년간 광주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랬던 사이, 지난 12일 타종을 끝으로 원불교 새벽 타종이 사라지자 아쉬움을 나타낸 것은 600여명의 광주교당 신도뿐만이 아니었다. 신도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시민들이 타종을 이어 가야 한다는 요청을 해온다는 게 원불교 광주교당 측 설명이다.

원불교 광주교당 범종은 지난 1957년 역사적인 첫 타종을 시작했다. 신도들의 성금으로 전남지역의 한 사찰에서 매입한 종을 녹여 만든 범종이라서 더욱 뜻 깊었다. 당시 첫 타종 행사는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1면에 소개되기도 했다.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궁동 원불교 광주교당 종루에서 교무가 범종을 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광주교당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1957년부터 치러온 새벽 타종의를 중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957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 도심에 울려 퍼져

인근 주민 "새벽 4시 퇴근해서 잘 수가 없어요" 민원 제기

광주교당 "이웃에 불편을 겪선 안된다" 논의 끝에 중단

신도들의 염원을 담아 제작된 범종은 광주교당에 들어서는 첫 관문인 3층 높이의 종루(鐘樓)에 달려있다. 범종은 시민의 몸과 마음을 평안히 하고 국가의 안녕을 염원하는 '평화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지난 1971년부터 낡은 종각을 수리하며 타종을 하지 않은 3년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단되기 전까지 무려 120만 번가량 범종 소리가 광주 도심에 울려 퍼진 것이다.

매일 새벽 5시에 타종 의식을 치르는 국내의 원불교 교당은 600곳(국내 519곳, 광주 15곳·전남 34곳) 가운데 주민 불편을 이유로 타종 의식을 중단한 사례는 광주교당이 처음이다. 원불교는 매일 새벽 5시 우주의 문을 여는 의미를 담아 33번 치고

하루를 마감한다는 의미로 밤 10시에 28번을 타종해 왔다.

원불교 광주교당 이덕운(여·56) 주임교무(敎務)는 "광주교당과 58년 역사를 같이 해온 새벽 타종 의식을 중단한 것은 원불교로서도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다"면서도 "신도와 시민들 일부가 타종을 이어 가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이 제기된 상황에서 원불교 측 입장을 고수하긴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원불교 측은 범종 대신 범당 안에 놓인 지름 30cm 크기의 좌종을 울리는 것으로 새벽 수행을 시작하며, 밤 10시 범종 타종은 이어가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해질 16:58
해짐 19:51 달짐 02:56

정마 대비하세요
동해상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점차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림	20/29	보성	흐림	17/26
목포	흐림	19/25	순천	흐림	18/28
여수	흐림	19/24	영광	흐림	19/28
나주	흐림	18/30	진도	흐림	19/28
완도	흐림	18/26	진주	흐림	19/29
구례	흐림	17/30	군산	흐림	19/26
강진	흐림	18/27	남원	흐림	18/29
해남	흐림	19/28	홍산도	흐림	17/22
장성	흐림	18/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시해	면바다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남부	면바다	남동~남	0.5~1.0	동~남동	0.5~1.0
남해	면바다	남동~남	0.5~1.5	동~남동	0.5~1.5
남해	면바다(동)	남동~남	0.5~1.5	동~남동	0.5~1.5
서부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동~남동	1.0~2.0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동~남동	1.0~2.0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50	운동	50
			빨래	50

◇주간 날씨

30(화)	7/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	☁	☁	☁	☁	☁	☁
21/24	21/26	21/28	21/30	21/29	21/29	21/27

내일 광주·전남 강풍 동반 장대비 예고

30일 광주·전남은 곳에 따라 120mm를 넘는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29일 맑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날인 30일 새벽 목포 등 남서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28일 예보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다소 무더운 날씨를 예상했다. 광주·전남은 30일 새벽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3~25도로 전량태 더위는 한풀 꺾이겠다.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 지방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0~80mm로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자전거 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 입힌 가해자에

법원 "40% 배상책임...1억원 지급하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장근 부장판사)는 28일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73·여)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주행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보행자 도로를 건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B씨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A씨 남편과 자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3억3천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감기·고혈압에 대형병원 찾은 의료수급자 약값 더 내야

올해 하반기부터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찾는 의료수급자 급증은 약값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란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시키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이미 지난 2011년 10월부터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 제도를 운영해 2013년 기준 삼급종합·종합병원의 처방 일수를 각각 35.9%, 19.2% 감소시키는 효과를 봤다.

단 복지부는 이번엔 제도가 바뀌더라도 동네 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18민족통일학교 담양에 문열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평화통일을 함께 교육하는 민간 비영리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다.

5·18민족통일학교는 28일 윤정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오종렬 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등 각 시민·사회·통일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다. 5·18민족통일학교는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세워졌다.

준공식에서는 '남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오종렬 이사장의 민주화운동 보상금 기부, 시민의 벽돌기부, 노동자들의 건축·설계 재능기부 등 시민의 힘으로 지어진 과정이 소개됐다.

오 이사장은 "5·18민족통일학교는 앞으로 5·18과 자주, 민주, 평화통일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축하했다.

한편 5·18민족통일학교는 5·18 정신 계승과 평화적인 민족통일 사업을 펼칠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백기완·백낙청·함세웅·이창복·배은심 등 민주인사들의 공동제안으로 건립이 추진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민주화운동을 겪은 오 이사장이 민주화운동보상금으로 부지를 사들이고, 시민과 노동자들의 잇따른 기부로 설립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제204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2015. 06. 18 ~ 07. 02(15일간)

일시	구분	차수	부 의 안 건
06. 18(목) 10:00	본회의	1차	○개회식 ○보고사항 1. 제204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06. 19(금)	상임위원회	1일	○상임위원회 활동 -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예비비 및 결산, 조례안 등 안건심사
06. 22(일) ~ 06. 26(금)	상임위원회	5일	○상임위원회 활동 -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예비비 및 결산, 조례안 등 안건심사
06. 29(월)	상임위원회	1일	○상임위원회 활동 -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예비비 및 결산, 조례안 등 안건심사
06. 30(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07. 01(수) 10:00	본회의	2차	○사항에 대한 질문
07. 02(목) 10:00	본회의	3차	○안건처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읍시의회
www.jcc.or.kr